

GROVERSE NEWS

2025.3.21(금) 그로버스 컨설팅 해외뉴스분석팀

[주요 내용]

○ 탄핵·수사 관련

- 현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(Reuters/Bloomberg)
- 윤대통령탄핵심판지연으로불확실성심화...한국의‘고통’ 장기화(SCMP)
- 한국야당의원, 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앞두고얼굴에게란공격당해(AFP)
- ‘가짜 뉴스 생성기’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허위 기사 확산 (AFP)

○ 한일중외교장관회의

- 조태열외교부장관아사히신문인터뷰...“한일협력, 선택아닌필수” (아사히)
- 22일한일중외교장관회의, 3국정상회의포석...중국관계개선될까(마이니치)

○ 북한

- 우려스러운북한의군사력증강(WT 기고)
- 북한, 장거리미사일규슈배치계획검토중인일본에경고(Reuters)
- 북한, 세계공급망에깊이침투...저비용고속련노동력기반(Economist)
- 미국“북한군, 우크라이나전쟁을지속시키고있다” (NK News)

○ 안보

- 한국“러시아군용기, 한국방공식별구역진입” (Reuters)
- 한미, 정례군사훈련마무리하고도하훈련실시(Reuters)
- 트럼프, 한·일과 항모 참여 연합 해상훈련으로 북한에 경고 (Newsweek)
- 중국이기빠할일: 트럼프, 아시아서미동맹국들의동요일으켜(독FR)
- 한국과 EU가 자연스러운 동맹인 이유 (ECFR)

○ 방산

- 부상하는 동아시아 방산업체 (Economist)
 - 한국·일본산무기수요증가...동아시아방산열풍지속될전망
-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방산주급등후3조원규모유상증자계획(Bloomberg/Reuters)

○ 무역

- 트럼프의무역전쟁, 아시아에서2018년처럼재현될까? 그렇진않을것(Reuters 기고)
 - 이번관세전쟁이규모가훨씬더크고더많은국가가관세망에포함
-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로 중국 철강 둘러싼 무역 마찰 급증 (Reuters)

○ 기업

- 현대차 CEO, 트럼프의전기차불확실성속에미국전략에자신감 (Bloomberg)
- ~~오펜~~ 오펜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점을 만든 과정 (Bloomberg)

○ 국민연금 개혁

- 한국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(Reuters)

○ 사회

- 한국혼인건수증가, 고령화국가에긍정적신호(Bloomberg/마이니치)
- 2025년국가별행복순위...한국, 전체147개국중58위(CNN)

○ 관광

- 한국 관광 활성화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계획 (Reuters)

탄핵·수사 관련

<Reuters 3.20 서울발> 헌재,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(Joyce Lee)

- 한국 헌법재판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힘

* <Bloomberg> 헌재,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예정

<SCMP 3.20>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불확실성 심화...한국의 '고통'

장기화 (Park Chan-kyong)

-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지연되면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가 더 커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
-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 경제적 손실과 외교적 마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
- 윤성석 전남대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번 판결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적 허점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
-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헌재가 신속히 판결을 내려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

<AFP 3.20 서울발> 한국 야당 의원,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얼굴에 계란 공격 당해

-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야당 의원이 계란으로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

-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팀을 구성. 용의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
- 헌법재판소 주변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갈등이 고조되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
- 경찰은 선고 당일 충돌을 막기 위해 약 14,000명의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며, 현재 주변 22개 건물 옥상 출입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을 '비행금지구역'으로 지정

<AFP 3.20> ‘가짜 뉴스 생성기’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허위 기사 확산 (Hailey Jo)

- 한국에서 AI 기반 ‘가짜 뉴스 생성기’로 만들어진 탄핵심판 결과 및 시위 관련 허위 기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
- ‘탄핵 찬성 시위 참가자들은 무료 급식 때문에 모인 것’이라는 기사와, 현재가 17일 선고할 것이라는 기사가 소셜미디어 및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혼란을 가중
- 이 기사들은 본래 “챗GPT가 작성했으며 실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”고 명시하고 있지만, 온라인에 유포된 가짜 게시물은 이 문구가 삭제된 채 공유되고 있음

한일중 외교장관회의

<아사히 3.21 서울발> 조태열 외교장관 한일 협력, 선택 아닌 필수 ”

- 조태열 외교장관은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한일 협력은 “선택이 아닌 필수”라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
- 조 장관은 <아사히신문>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, 한일중 협력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틀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뜻을 전함
- 또한 탄핵 정국 속 외교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. 미북 대화에 대해선 미국이 협력을 약속한 만큼 ‘코리아 패싱’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

<마이니치 3.21 도쿄발 > 22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, 3국 정상회의 포석... 중국관계 개선될까

- 22일 도쿄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.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일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, 실질적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
-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. 한일중 관계 소식통은 “한국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한일중 정상회의도 머지않아 열릴 것”으로 전망

북한

<WT 3.20 기고> 우려스러운 북한의 군사력 증강 (Joseph R. DeTrani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)

-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 이후,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,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, 극초음속 미사일, 정찰위성 개발에 성공
- 몇 주 전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하는 사진을 공개
- 북한이 러시아와 새로 동맹 관계 및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것이 최근 정찰위성 및 핵추진 잠수함 진전에 일조했다는 점은 명백
- 이처럼 유감스러운 전개 상황은 미국, 미국의 동맹국들, 미국의 협력국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

<Reuters 3.20 서울발> 북한, 장거리미사일 규슈 배치 계획 검토 중인 일본에 경고 (Joyce Lee)

- 북한은 일본이 규슈 지역에 장거리미사일 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
- 관영 <조선중앙통신>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이 과거의 침략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며, 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비롯한 나토와의 협력 등을 비난

<Economist 3.20> 북한, 전 세계 공급망에 놀라울 정도로 깊이 침투

- 연어 필렛, 인조 속눈썹 등 서구의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이 모든 부분이 북한 노동력의 영향을 받고 있음. 북한의 저비용 고속련 노동력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
- 이는 강제 노동의 불편한 윤리를 넘어서는 문제. 이러한 노동력 수출은 당 엘리트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과 김정은의 핵·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
- 이 수입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제재를 회피하고 전 세계 공급망에 침투할 방법을 모색. 북한 기업들은 이제 그물망을 더 넓게 던지고 있음
- 팬데믹과 원격 근무로의 전환은 이들이 외화를 벌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시. 북한 IT 근로자들은 조작된 신원 등을 이용해 원격 근무 직책을 얻고 있음
- 세계 경제에서 경쟁자의 절반 비용으로 하루 12시간 동안 힘든 일을 할 의향이 있는 교육받은 노동력은 매력적. 북한은 고립돼 있지만, 노동력은 그렇지 않음

<NK News 3.20> 미국 “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켜” (Alannah Hill)

- 미국 국무부는 19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“지속시키고 있다”고 비판. 이는 북한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직접적인 비판

-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주말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

안보

<Reuters 3.20 서울발> 한국 “러시아 군용기,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”

(Ju-min Park)

- 한국 국방부는 20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(KADIZ)에 진입했다고 발표
-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3월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8회에 걸쳐 KADIZ에 진입했으며,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힘

<Reuters 3.20 연천발> 한미 , 정례 군사훈련 마무리하고 도하훈련 실시

(Daewoung Kim, Hyunsu Yim)

- 한국과 미국은 20일 11일간의 정례 한미연합연습인 ‘프리덤 실드’를 마무리. 이번 훈련에는 경기 연천 일대에서 실시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도 포함됨
- 주한미군과 합동참모본부는 양국 군이 이번 훈련에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방어 태세를 강화했다고 발표

<Newsweek 3.20>트럼프, 한일과 항모 참여 연합 해상훈련으로 북한에 경고

(Ryan Chan)

- 미국이 이번 주 한국, 일본과 함께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. 이번 훈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3자 연합 해상훈련
-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칼빈슨함이 17~20일 한·일과 연합 훈련을 했으며 “다양한 전투 영역에서의 상호 운용성과 대비 태세를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”고 밝힘
- 한국 국방부는 “북한의 핵·미사일·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, 해상 안보 역량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”고 밝힘

<독 FR 3.20> 중국이 기뻐할 일: 트럼프, 아시아서 미 동맹국들의 동요 일으켜

(Sven Hauberg)

-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확산
- 트럼프는 미일 방위조약이 불공정하다며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. 대만에서는 중국의 공격 시 미국이 개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

- 북한의 위협을 안고 있는 한국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.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지만,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
- 중국 관영 <글로벌타임스>는 이를 ‘동맹의 위기’라며 만족감을 표시. 한미일 협력과 쿼드 등 동맹이 약화되면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
- 그러나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과 일본, 대만에 모두 타격을 주면서, 오히려 이들 국가가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음

<ECFR 3.20> 한국과 EU가 자연스러운 동맹인 이유 (Alexander Lipke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아시아프로그램 코디네이터)

- 유럽과 한국은 주요 지정학 이슈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공유.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과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, 러시아를 위협적인 적대국으로 인식
- 러시아의 안보 위협, 신뢰하기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은 **한국**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독특하고도 필수적인 기회를 제공
- 한국인 절반은 EU를 미국과 동등한 영향력을 지닌 파트너로 인식. 한국은 또한 방위산업을 통해 유럽이 러시아 대응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
-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기회가 존재. 트럼프가 보호주의 무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, **EU**는 한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더욱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

방산

<Economist 3.20> 부상하는 동아시아 방산업체

- 한국과 일본 방산업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. 양국 방산업체의 연간 총매출은 2022년 이후 25% 증가해 630억 달러를 기록
- 한일 방산기업들이 선전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무기 순수입국이었던 양국 정부가 미국 군사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자국 무기로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
-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미 동맹국들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행에 착수
-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. 동아시아 방산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<Bloomberg 3.20> 한화에어로스페이스방산주 급등 후 3조 원 규모 유상
증자 계획 (Dave Sebastian & Heejin Kim)

-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년 만에 3조6,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. 방산주 수요 급증으로 올해 한화의 시가총액은 두 배로 성장

- 한화는 주당 발행가액은 60만 5,000원이며 약 600만 주를 발행할 계획. 금융감독원은 증자 규모를 언급하며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발표
- 한화는 세계 각국이 방위 예산을 인상하도록 압박하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장갑차 등 지상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* <Reuters>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국내외 확장 위해 3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

무역

<Reuters 3.20>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아시아에서 2018년을 재현할까? 런던 않을 것 (Manishi Raychaudhuri 홍콩 Emmer Capital Partners CEO)

- 현재 전개되는 관세 전쟁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첫 무역 분쟁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유사점은 제한적이며, 이는 아시아 대부분 국가에 나쁜 소식일 수 있음
- 이번 관세 전쟁은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국가가 관세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. 무역 분쟁으로 아시아 증시는 여러 방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
- 여기에는 수출 침체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, 유동성 고갈로 인한 국내 수요 붕괴, 미국 시장에 노출된 기업의 매출 감소 등이 있음
- 시장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. 전반적으로 아시아에서 트럼프의 두 번째 무역전쟁은 첫 번째와 다를 것이며,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

<Reuters 3.20 베이징발>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로 중국 철강 둘러싼 무역 마찰 급증 (Amy Lv & Lewis Jackson)

- 중국 철강 산업은 올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로 또 다른 무역 마찰에 직면하면서 수출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
- 한국에서는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38%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음
- 베트남과 인도도 중국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유럽연합은 오는 4월부터 중국 철강 수입을 최대 15% 감축할 것으로 밝혔음

기업

<Bloomberg 3.20> 현대차 CEO, 트럼프의 전기차 불확실성 속에 미국 전략에 자신감 (Heejin Kim)

- 호세 무뇨스 현대차 CEO는 20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기차 및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일축

- 무노스 사장은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하며, 현대차의 '현지화 전략'이 잠재적인 정책 변화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

<Bloomberg 3.20> AI 열풍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점을 만든 과정 (Mark Bergen)

- 챗GPT를 비롯한 대부분의 AI 모델은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용하며,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등 특정 구성 요소 시장의 92%를 차지
-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3개 파트너사인 한국의 SK하이닉스, 대만의 TSMC, 네덜란드의 ASML에 의존
-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80%를 차지하며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음. TSMC는 파운드리 시장에서, ASML은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독점적 위치를 유지
-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반발이 커지며,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음
- 엔비디아와 주요 파트너사들의 독점 유지 여부는 불확실. AI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며, 경쟁업체들의 혁신과 규제 당국의 감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

국민연금 개혁

<Reuters 3.20 서울발> 한국,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(Jihoon Lee)

- 한국 국회는 20일 8300억 달러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
- 이번 개혁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주요 개혁으로,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, 소득대체율을 올해 41.5%에서 43%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
- 이번 개혁안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50년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는 것

사회

<Bloomberg 3.20> 한국 혼인 건수 증가, 고령화 국가에 긍정적 신호 (Sam Kim)

-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'2024년 혼인·이혼 통계'에 따르면,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14.8% 증가

- 혼인 건수 증가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해, 세계 최저 수준인 출생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강화 중인 한국에겐 희망적인 신호
- 앞서 발표된 출생률 상승과 혼인 건수 증가는, 1990년대 초반 태생과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뤘던 커플이 주도

<마이니치 3.21 서울발> 한국 작년 혼인 건수 급증, '일본인 여성과' 40% 증가

- 한국 통계청은 20일, 2024년 혼인 및 이혼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. 혼인 건수는 약 **22만 2400건**으로 전년보다 약 2만 8800건이 증가
-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800건으로 전년 대비 5.3% 증가해 혼인 전체의 약 **10%**를 차지
-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이 50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, 태국, 일본 순. 일본인 여성과의 혼인은 1176건으로 전년 대비 약 40% 증가

<CNN 3.20> 2025 년 국가별 행복 순위...한국, 전체 **147개국 중 58위**
(Marnie Hunter)

-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월빙리서치센터가 발표한 '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'에 따르면 핀란드는 전체 147개국 중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
- 상위권은 핀란드 포함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. 덴마크, 아이슬란드, 스웨덴이 **2024년과 동일한 순위로 2~4위를** 유지했으며, 노르웨이도 7위를 기록
- 지난해 처음 20위 밖으로 밀려난 미국은 올해 24위로 하락하며 사상 최저 순위를 기록. **30세** 미만 청년층이 삶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주요 요인
- 아프가니스탄(147위)은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. 그 외 시에라리온(146위), 레바논 (**145위**), 말라위(144위), 짐바브웨(143위)가 최하위 5개국에 포함됨
- * 한국은 지난해보다 ~~한~~계 떨어진 58위를 기록. 일본은 55위, 중국은 68위)

관광

<Reuters 3.20 서울발> 한국, 관광 활성화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 무비자

입국 한시적 허용 계획 (Jihoon Lee)

- 한국 정부는 20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 3분기 중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
- 이는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 등의 국가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은 조치